

<b>안 그래픽스</b> 인쇄, 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b>이강연 CPA</b> <b>미카엘</b> 770-279-2770 info@mklcpa.com	<b>리 장례식장</b>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b>PIWC Group Agency</b> 자동차, 집, 사업체,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욱 베드로 404-644-8658	<b>SB 건축&amp;철공</b>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b>오즈 냉 동</b>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b>FARMERS INSURANCE</b> <b>로렌 배 보험</b>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b>배용자 루시아</b> <b>보험금융</b>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무주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b>Suwanee 스와니 교정 치과</b>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	<b>Brighter Smiles</b> 광 상 범 이수산나 <b>잔스크릭 치과</b> www.brsmiles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30024	<b>Fairway Home Loan</b> *주택융자 *상업융자 <b>최윤석 융자</b>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b>SMILE 1 DENTAL GROUP</b> 김세희 소화테라사 김상윤 요셉 <b>스마일원치과</b>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b>ALFONE LIFE FINANCIAL &amp; INSURANCE SERVICE</b> <b>메디케어 / IRA / 연금</b> <b>생명보험 / 오바마케어</b>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b>미소 치과</b>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b>AAA 이창호 보험</b> Insurance Checklist <b>메디케어</b> 신청, 변경 도와드립니다. 이창호 바오로 678-910-0884 cclee@acg.aaa.com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b>MASTER REALTY</b>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smkim@master-realty.com	<b>Peachtree Physical Therapy</b>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b>더조은 척추</b>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b>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b>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b>KW KELLERWILLIAMS.</b>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b>만 천 흥</b> 명품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b>VINEYARD REALTY</b> SINCE 1999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도지 조셉 김 678-361-6230	<b>Pinehill Realty</b>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b>정승욱 미카엘 변호사</b>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b>오약국</b>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b>TOP 조경</b>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b>주보 광고 문의</b> kmccga.bulletin@gmail.com	<b>교통사고 상해</b>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	<b>RIVERBEND Tire &amp; Auto Service, Inc.</b>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b>SONAMOO</b> 소나무 Auto Repair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b>주보 광고 문의</b> kmccga.bulletin@gmail.com
<b>GIFTS GOLD · CROSS · REPAIRS</b>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b>주보 광고 문의</b> kmccga.bulletin@gmail.com	<b>주보 광고 문의</b> kmccga.bulletin@gmail.com			

# 순교자 주보



**이탈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4월 2일

**NO.2193**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c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에루살렘 입성》, 지오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c.1266-1337), 프레스코화, 파도바 스크로베니 경당(Padova), 1304~1306, 이탈리아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 가** 입당: 10 봉헌: 220 성체: 190/187 파견: 123

**제1독서** 이사야서 50,4-7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 - 를 버리 셧나 - 이 까?

**제2독서**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태오 26,14-27.6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마태오 26,14-27.66)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1  
 예수님과 제자들이  
 1 ① 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 벳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2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곁의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무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 줄 것이다.”  
 4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5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② 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③ 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8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④ 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⑤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⑥ !”  
 10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⑦ 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1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래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고요히 < 마태오 26,14-27.66 >

배영길 베드로 신부

요란한 외침 속을.  
 독기 어린 마음속을.  
 병혹한 눈빛 속을.

고요히 응하는 이.  
 찬찬히 따르는 이.

나의 남이시여,  
 어찌 그리 이 길을.  
 그렇게.

사랑 때문에 ...



###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마태오26:22>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제자들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이 확신했을 때, 제자들인 우리는 저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또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너무나도 낯선 모습을 보고 ‘나’라는 자아에게 소스라치며 놀라서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품고 있던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에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지금은 짐이 되니 어디론가 숨어서 ‘나에게 불뚱만 튀지 않게 되었으면’ 생각하던 다른 제자들도 유다 만큼은 아니었지만 ‘주님, 제가 아닌 게 아니더군요! 제가 맞네요!’ 인정하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되뇌었던 그 질문이 주는 강렬한 아이러니를 가슴을 내리치며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모르 척 했던 이가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한 그토록 이기적인 이가 저는 아니지요? 주님, 공동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잔머리 굴리며 생색만 낸 이가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당신이 물가로 와서 좀 쉬라고 할 때 바쁜 척하며 한없이 멀리서 세상적인 기쁨에만 빠져 있던 이가 저는 아니었지요?...그래 너 맞아!

과연 우리의 합리화는 언제 끝이 나고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연약하다면 연약한 어리석음 투성이 제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분이 부르시는 물가로 갈 수 있겠습니까?

### | 성 찰 |

나는 주님한테 무엇을 받고 싶어합니까?  
 나는 인정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대신 사랑 받고 싶어합니까?

###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 ① 예루살렘    ② 임금님    ③ 겸손    ④ 겹옷
- ⑤ 호산나    ⑥ 호산나    ⑦ 예루살렘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2021년 3월 28일)

## “성주간 동안 놀라움의 은총을 받기 위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한국어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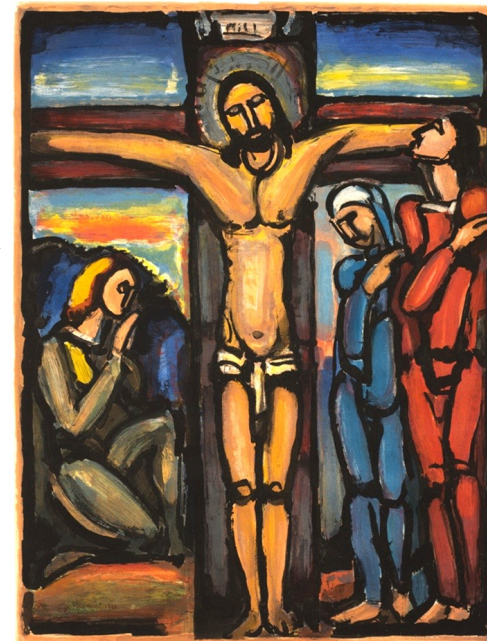


매년 맞이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전례는 우리 안에 놀라움의 태도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쁨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뵈는 고통으로 건너갑니다. 이는 성주간 내내 우리를 동행할 내적 태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께서 굴욕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칭찬과 성공에 굴복하는 우리는 (고통과 죽음을) 회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필리 2,7,8 참조)고 성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중략)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 현실의 밑바닥까지 다르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모든 악을 꺾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고통과 죽음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 속으로 내려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실패, 모든 이의 거부, 사랑하는 이의 배반, 하느님에 의한 버림받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의 최악의 상태를 겪으셨습니다. 당신의 육신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우리의 모순을 경험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그 모순을 구제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 다가와,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상처에, 모든 두려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죄도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 (성지, 聖枝)는 십자 나무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와 십자가는 함께 갑니다.

**놀라움의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움이 없다면 잿빛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매일 놀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조루즈 루오(Georges Rouault)

신앙이 놀라움을 잃는다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더 이상 은총의 경이로움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생명의 빵과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더 이상 형제들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선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성주간 동안, 놀라움의 은총을 받기 위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놀라워할 줄 모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의해 닳아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후회 속에 갇혀 우리의 불만족에 의해 마비가 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고, 심지어 우리가 틀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쩌면” 뒤에는 우리에게 놀라움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님에 의해 놀라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삶의 위대함이란,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위대함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 버려진 존재가 되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버림받은 이를 받아들이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 소외된 이들 안에, 우리의 바리사이적 문화가 단죄하는 이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놀라게 하십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맡겨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청년회 사순 피정 '내 안에 머물러라' Retreat**

3/24-26일 청년회에서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수도원으로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주제로 라파엘 부주임 신부님의 지도 아래 사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해주신 성모회, CLC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킨더 & 1학년 - 최후의 만찬**

액티비티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시청하고 식빵과 포도주스로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마셔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4일 (금) Johns Creek 구역미사



**3월 25일 (토) 혼인미사**

오후 2시에 신랑 장윤덕군과 신부 문근실(곤술시아)양의 혼인 미사가 있었습니다.



**첫 영성체 반 - 성당 둘러보기**

첫 영성체 반 친구들이 주일에 성당 투어를 했습니다. 사무실-신부님방-신부님식당-성물방-성가대실-주방-제의실-고해성사실-성전-성가대석-제구실-유아방 순서로 둘러보았습니다. 꼼꼼히 둘러보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춘계 골프 대회 4/30(일) 접수 & Donation 성당 지부 교체 기금 마련



3월 26일 (일) 페루 선교 후원금



3월 26일 (일) 로사리오 평생대학 접수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성주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구원 신비 기념**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성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한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이다.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곧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해 준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날 교회는 미사 전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환영한다는 상징적 행위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거행한다.

◎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은 한 해의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삼일 동안을 말한다. 곧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에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9항).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는 각 교구의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사제들이 모두 모여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한다. 이 미사 중에는 사제들이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사제직에 대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제 서약 갱신'이 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한다. '재의 수요일'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이 미사 직전에 끝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 지거리더

**성체조배**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태오 26,40-41)

성체 조배는 주님 수난 예식 전까지 계속한다. 성체를 모셔 두는 장소는 기도과 묵상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은 하지 않는다. 성체는 감실이나 성함에 모시고 문을 잠가야 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체를 영광에 모시어 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감실은 '무덤'이 될 수 없으므로 '무덤'이라는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는 '주님의 문히심'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 금요일의 성체 분배와 병자들을 위하여 성체를 모셔 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마태 26,40)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자들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다음, 밤 시간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정이 지나면 소박한 분위기에서 조배를 한다. 주님 수난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후의 만찬>, 후안 후아네스(Joan de Joanes)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제대포를 벗긴다. 또한 제대 중앙의 십자가를 치우거나 천으로 가린다. 신자들은 수난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한다.

